

야당 존폐위기에도 지역 국회의원들 존재감 없어

광주·전남 민심 ‘부글부글’ 중진들 ‘당권 도전’ 돌파구

차기 총선 물갈이 태풍 예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민심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임계점에 와있기 때문이다.

7·30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새정치연합이 정국을 끌여가지 못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민심의 평가다. 여기에 계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용을 거둬들이는 등 혁신 의지마저 상실, 정권 창출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역 민심의 분노는 광주·전남 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과감한 도전과 문제 제기를 통한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을 형성하지 못하고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새로운 변화

를 바라는 지역 민심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당선은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전대에서 선출된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공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인제 폴도 넓은 편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고배를 마신 전정배 전 장관, 강운태 전 시장, 이용섭 전 의원이 ‘복수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경쟁력이 증명된 일부 기초단체장들의 금빛 도전설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넘지 못했던 정치 신인들도 와신상담을 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자 3선 이상 중진들의 지도부 도전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 공천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선부론 도전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컷-오프 탈락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오히려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모 중진 의원은 “지도부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도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마음이 바쁜 모습이다. 정치적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0대 총선에서 역대 최강의 물갈이 태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존재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물갈이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여전사들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주말 금메달 퍼레이드를 벌였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화순 출신의 양궁 이특영(광주시청), 전국체전 광주시 대표인 승마 방시례(렛츠런승마단), 나주 출신 사이클 나아름(삼양사), 광주 여고생 골퍼 박결(동일전자정보고)이 금메달 획득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4공장 신설...친환경차 생산해야”

노조,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위한 8개항 제안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5일자 1·3면>과 관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이 100만대 자동차 생산 도시를 위한 8개 항을 제안하고 나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26일 기아차 광주공장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주 자동차산업벨리 조성 유관기관 합동연찬회’에서 완성차와 부품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품사에 대한 기술지원, 물류비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그린카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제 4공장을 신설해 3세대 미래형 연료전기차, 수소차, 클린디젤을 양산하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부품사, 연구개발 기능의 공존을 위해 현재의 서구 광천동 부지가 아닌 제3의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해외공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공장 신축, 부품공급과 자동화 물류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408만1000㎡)를 2018년 12월까지 조성한 뒤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일부에선 기아차 광주공장의 확장 또는 이전 부지로도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또 자체 주행사형장을 확보하고 중량물, 위험작업, 위험작업은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여성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금빛 주말’ 광주·전남 거센 女風



사이클·양궁·골프·승마 등 잇따라 금메달

‘여성 파워’가 돋보이는 골든 주말이 <관련기사 18·19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여자 선수들이 사이클·양궁·골프·승마에서 금메달 퍼레이드를 펼쳤다.

8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체전에 출전한 이특영(25·광주시청)은 28일 인천 계양 아시안드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장혜진(27·LH), 정다소미(24·현대백화점)와 대회 5연패를 이뤘다.

여자 골프 대표팀의 박결(18·동일전자정보고)도 한국의 3연패를 잇는 ‘금빛사’

를 날렸다. 박결은 드림파크골프장(파72)에서 열린 여자부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8개의 버디를 더하며 8언더파 64타를 기록,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태국 붓사바란 수카판(18언더파 270타)을 1타차로 제친 박결은 한국의 개인전 3연패를 완성했다.

공태현(20·호남대)·김영웅(16·함평골프고)이 출전한 남자골프단체전에서 은메달이 나왔다. 한국 남자대표팀은 826타를 기록, 대만(819타)의 뒤를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나주 출신의 나아름(24·삼양사)이 여자 사이클 도로독주

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2010년 광주우 대회 이만혜에 이어 한국의 2연패를 이뤘다. 나아름은 단체추발 은메달과 옴니엄 동메달에 이어 금메달까지 3개의 메달을 목에 걸며 광주우 대회 낙차사고의 악몽을 지웠다.

26일에는 승마 방시례(26·렛츠런승마단)가 종합마술 단체전 ‘금빛 마술’에 힘을 보탰다. 방시례는 종합마술 참가자 27명 중 3번째로 적은 41.30점의 감점을 받아 동메달을 더했다.

여자 볼링에서는 곡성 출신의 이영성(18·한국체대)이 여자 2인조 경기에서 정다운과 246점을 합치하며 값진 동메달을 추가했다.

/인천=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Gwangju World Kimchi Culture Festival 2014

기간 : 2014.10.4~10.8/5일간

장소 : 광주 중외공원 일원

주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
Gwangju World Kimchi Culture Festival Committee



웹사이트
http://kimchi.gwangju.go.kr

블로그
http://www.gwangjukimchi.com



미리 맛보는

김치오감 파빌리온 (4종)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오감이 살아있는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합니다.

김치 맛, 멋, 흥

김치의 전통과 뿌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김치생활상의 변화과정이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김치정보가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인과 함께하는 김치문화탐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을 통해 즐거운 김치문화를 알립니다. 김치명인이 들려주는 맛깔스런 김치 레시피와 김치당그기 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김치문화탐험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치, 유네스코를 만나다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합니다. 깊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김장문화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김치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세계의 음식 문화를 만나봅니다.

김치 창의 놀이터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치 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오감체험 공간이 펼쳐집니다. 김치상상터널을 통해 시각과 공간감을 키워주고, 김치문화콘텐츠를 통해 예술체험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